

SK, 지주회사 경영 효율성 높여...

최태원 회장, 전문역량 강화에 글로벌 경영 ... SK 미래를 위한 결단

최태원 SK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6월18일 그룹 사보에 게재한 <특별메시지>를 통해 “투자와 사업 부문 분리로 사업구조가 명확해지고 사업부문의 전문역량 강화로 경영효율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기업가치와 대외신인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시장과 정책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갖추으로써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선진지배구조를 향한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면서 “앞으로 SK가 보다 선진적인 지배구조,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 튼튼한 재무구조로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과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SK가 지주회사 체제의 출범을 의결해 50년을 이어온 SK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 “1970년대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 선언, 1990년대 정보통신산업진출이 SK의 사업구조에서 큰 획을 그었던 것처럼 지주회사 전환도 SK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결단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에 대해 고민한 결과 SK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통해 SK Value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었다”고 지주회사 전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실행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꿈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SK는 2000년 이후 꾸준한 사업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생존조건을 확보했고, 이사회중심경영을 통해 시스템경영의 정착이라는 내부적 역량과 여건을 갖추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은 SKMS(SK경영체계)와 브랜드를 공유하며 자율경영을 통해 성과를 높여 SK Value와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키워나가는 <따로 또 같이>를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으로 선진지배구조로 향한 길에 들어섰지만 말 그대로 시작이지 완성일 수는 없다”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보다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임직원들도 함께 해 달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8>